

보도시점 : 2026. 6. 17.(수) 06:00 이후(6. 17.(수) 석간) / 배포 : 2026. 6. 16.(화)

##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끌 전문가 키운다

- 현장 프로젝트·인턴십 강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 2곳 신규 선정

- 정부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 등을 강화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새로 선정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재생 사업을 현장에서 기획·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단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26~'30)」 수행대학을 6월 18일부터 공모한다.
  - 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20~'25)에서 선정한 대학(인하대, 고려대, 충북대, 경북대, 경성대, 광주대) 외에 추가로 대학의 전공교육과 도시재생 현장 실무를 융합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 기존 6개 거점대학이 소재한 권역은 제외하고,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을 한정하여 공모 추진
  -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산학협력 비용, 시설·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하되, 대학 자산 25% 매칭을 의무화하여 교육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 '27년 각 1.2억원 지원, '28년부터는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 확정 예정
- 이번 2단계 사업은 대학의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었다.
  - 우선, 교육과정은 기초-심화-특화·현장 중심의 단계적 구조로 운영되며, 지방정부·도시재생지원센터·공공기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또한, 대학별 교육성과와 운영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반영하는 연차평가 및 차등지원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성과가 축적되는 전문인력 양성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전문인력의 지방정부·공공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기업 등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확대하여, 도시재생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6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6월 23일에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 (일시/장소) '26.6.23.(화), 14:00 /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051-998-2336, 2339)
- 국토교통부 박희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정·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2단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과 현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책임자	과 장	박희민 (044-201-4901)
		담당자	사무관	신한나 (044-201-4905)
			주무관	유소영 (044-201-4911)

